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협력과 발전의 길

성균중국연구소와 J-China 포럼은 (사)한중우호협회의 후원으로 11월 20일 성균관대학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협력과 발전의 길” 제4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적인 중국연구기관인 성균중국연구소의 2015년 연례국제학술회의와 국내외 대표적인 중국연구단체인 J-China 포럼의 국제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시진핑 시기 가장 핵심적인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의 관계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이미 중국에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했고 시진핑 집권 후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의하며 중국으로부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접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검토는 오늘날 중국의 길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대토론회는 솔직하고 유익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의 주요쟁점인 한미동맹, 일본문제, 북한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질서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정치에 가장 큰 화두인 성역 없는 중국공산당의 개혁과 중국의 길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와 당의 필독서가 되어 출판계의 화제를 뿌린 『대도지행』(『중국공산당을 개혁하라』: 성균중국연구소 역, 2015)의 필자는 물론, 대만과 한국의 날카로운 토론자를 모시고 토크 콘서트 형식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간 당일 중국내 3대 온라인 서점 완판 기록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13만부가 팔린 『대도지행』의 저자들과 중국의 길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오늘날 중국의 길과 한중관계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20일 가을이 깊어가는 문향 가득한 성균관대에서 함께 모여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2015년 11월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이희욱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한우덕
(사)한중우호협회 회장 박삼구
드림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협력과 발전의 길

프로그램

09:00~09:30 [개 회 식] 등록 및 개회

환영사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축사	추귀홍 (邱国洪)	주한 중화인민공화국대사
개회사	이희욱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09:30~09:50 [기 조 연 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	

10:00~12:00 [라운드테이블]

사회	이희욱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발표	리우루이 (刘瑞)	중국런민대학 경제학원 부원장
	페이성 (费晟)	중산대학 대양주연구센터 교수
	송귀요 (宋国有)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
	김재철	가톨릭대학 국제학부 교수
	정영록	서울대학 국제대학원 교수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12:00~13:30 [오 찬]

600주년 기념관 6층 패컬티 식당

중국의 길과 한중관계

프로그램

후원 J-China 포럼
(사)한중우호협회

13:30~15:30 [학 술 회 의] 한중관계의 쟁점

사회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
발표	이동선	고려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관계와 미국”
	김근식	경남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중관계와 북한: 한국의 시각”
	리우지아 (刘佳)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한중관계와 북한: 중국의 시각”
	량원상 (梁云祥)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한중관계와 일본”
토론	이원덕	국민대학 일본학연구소 소장
	궁커위 (龚克瑜)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15:30~15:50 [후 식]

15:50~16:10 [특 별 강 의]

Zhong Yang (钟杨)	The University of Tennessee 정치학과 교수 / 상하이교통대학 장강(長江)학자
“중국 정치와 한중관계”	

16:10~18:10 [토 톨 콘 서 트]

사회	백우열	성균중국연구소 부소장
발표	옌이룽 (颜一龙)	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허젠위 (何建宇)	칭화대학 맑스주의학원 교수
	왕신시엔 (王信贤)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김도경	성균중국연구소 교수

18:10~18:20 [폐 회]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 협력과 발전의 길

성균중국연구소는 동아시아지역연구소를 확대, 개편하면서 2012년 중국 연구에 주력하는 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 동안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중국연구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성균중국연구소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연구 인프라 구축이다. 국내외의 호평을 받았던 『차이나 핸드북』을 출간했고, 중장기 연구 어젠다 개발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조직하는 한편 Research Cluster, 콜로키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연구와 정책의 확산이다. 중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성균차이나포커스』와 현대 중국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는 『성균차이나브리프』를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연구의 한국적 시각을 전달하는 『성균중국관찰』을 중문판으로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인민출판사 등과 MOU를 맺고 『중국전략보고』, 『한반도연도보고』 등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출판하고 있다.

셋째. 네트워킹 사업이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지속가능한 소통과 시너지 그리고 장기적인 협동연구를 위해 교류하고 있다. 현재,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 연구소, 베이징대 정치발전과 정부관리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국립정치대학 동아연구소(대만),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푸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국기자협회 등과 MOU를 맺고 정기 국제 학술대회, 공동출판, 공동기획, 학술포럼 등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중국연구의 공공재(Public Goods)를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중국정책수립에 대한 자문과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교류 자문과 협력, 베이징 공청단과의 교류사업, 한국기자협회의 중국전문기자과정 연수, 한중우호협회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연구, 정책, 네트워크 활동 플랫폼이 되어 학문과 정책의 가고, 한국의 중국연구 수준 제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5

J-China 포럼

성균중국연구소 국제포럼

2015

성균중국연구소 국제학술회의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 (110-745)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09호
|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연구원실: 02-740-1655~6
| 대표전화: 02-740-1655 / 팩스: 02-740-1657 /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 일시: 2015년 11월 20일 (금) 09:00 ~ 18:20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90208
| 주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J-China 포럼
| 후원: 한중우호협회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